

군공항 이전 등 뜨거운 현안 피해갔다



포용은 했지만... 25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과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한 협약식을 한 뒤 포옹하고 있다.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왼쪽)과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오른쪽)도 박수를 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15개월만에 공식적으로 만나 해묵은 사·도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동안 입장 차이를 보여 진전을 보지 못했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복합혁신센터 건립 문제는 광주시의 양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2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24건 협력과제 추진 상황보고와 민선 7기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신규 협력 과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협력과제는 '혁신도시 시존2' 공공기관 추가이전 공동 대응과 빛가람 복합 혁신센터 건립,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

이용섭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15개월만의 만남 해묵은 사·도 현안과 신규 과제 속도감 있게 처리기로 혁신도시 발전기금·공공기관 추가이전 공동 대응 합의

도로사업 등 8가지다. 기존 과제 24건 가운데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및 '제 12회 광주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등 5가지는 완료됐고, 나머지 19건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신규과제를 비롯한 지역 주요 현안도 원만히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인공지능(AI)산업', 전남의 '정전 전남 블루이코노미' 등 핵심산업 성공을 위해 상호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 현안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옮겨올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및 발전재단 설립 문제는 내년 중 국책연구기관에 공동운영을 맡겨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히 사·도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 국방부에 공을 넘겼으며, 전남도가 이번 회의에서 다루자고 요청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문제도 "내년에 안전에 우려 논의하자"는 광주시의 반대로 최종 안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사·도 수장이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만났는데도 원론적인 얘기를 주고받거나 해결 의지를 다지는 자리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발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해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어 합의도 불구하고 만남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장, 지사의 무관심을 반영한 듯 이번 상생발전위원회 개최 전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위원회조차 지난달 초순에서야 가동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5·18 단체 40주년 앞두고 새 판 짜다 ▶6면
- 최진석의 새 말 새 몸짓 ▶9면
- 굿모닝 예방 - 고희 연출도 ▶18면

일정 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이 시장과 김 지사의 이날 만남은 사·도민이나 지역 정치권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도 상생과제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여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014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차례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하반기(8월) 개최 이후 올해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이유로 1년 3개월 넘게 개최하지 못했다.

"5·18 관련 미국 자료 공개하라" 외교부,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

40주년 앞두고 진상규명 계기

외교부가 지난 주 미국 정부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데 특별법에 따른 5·18 진상규명 위원회가 출범,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어서 미국 측의 자료가 확보된다면 80년 5월의 진상을 밝히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동남 을)에 따르면 외교부는 그동안 주미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대한 조력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동맹에 상공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 5·18 기념재단 등 유관 기관과 세 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했다. 또 민간 전문가들과 여섯 차례 협의를 갖고 미국 측에 요구할 자료와 우선 순위 등을 논의해 왔다.

외교부는 우선 미국 측에 그동안 공개한 자료 가운데 삭제(black out) 처리됐던 부

분을 추가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키워드 검색을 통해, 미국 정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록물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를 언제까지, 어느 정도를 공개할 것인지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다만 지소미아 문제가 풀리면서 긴장 모드가 있었던 한미 관계도 해빙 흐름을 보일 전망이어서 미국 측이 5·18 민주화운동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80년 5월 당시 미국 측이 군부의 광주에 대한 군사작전을 사실상 방조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청와대 등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인다면 미국 정부도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라는 점에서 미국 측의 자료 공개가 이뤄진다면 진상 규명에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미국 측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전공대 법인 연내 설립 불투명

교육부 심사위 안전 상정 안 돼

한전공대(가칭)의 연내 법인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학교법인 설립을 심사하는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최근 열렸지만, 한전공대 설립 안전은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 안팎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만큼 연내 법인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2월 한 차례 남은 심사위원회에 안전이 상정돼 논의될 지 미지수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열린 '2019년도 제7차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 한전공대 법인 설립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며, 회의는 대체로 1~2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지난 9월30일 교육부에 한전공대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한전은 법인 허

가 신청서를 내면서 임원 명부, 설립운영규정, 대학 설립 취지 등 7종의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 준비로 신청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면서 안전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내부 검토를 통해 한전 측에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 신청 안전은 아직 심사위원이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다음 달 한 차례 대학설립심사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김종갑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이사 7명·감사 후보 2명 등 임원진 9명을 선출했다. 한전공대는 나주 혁신도시 내 부영CC 부지 120만㎡에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겨울여행

HNT 하나투어 무/안/공/항/에서 '우리가족 해외여행' 편하게 떠나요!

동남아

겨울 특별기

캄보디아 ARPF01_3
캄보디아 앙코르 4일 5일
499,000원-
수 3월4일 토 3월5일 (02.11.11~20.2.28)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겨울 특별기

나트랑 AVPF21_D
나트랑/달랏 4일 5일 6일
950,000원-
수 3월4일 토 3월5일 (19.12.28~20.2.22)
*1월18일,23일,27일,2월1일 제탄성이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방콕 APFF01_1
방콕·피타야 5일 6일
599,000원-
수 3월4일 토 3월5일 (19.12.28~20.2.22)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신규취항

괌 PGFF02_P
괌 4일 피에스타호텔
877,000원-
매일출발 3월4일 (19.12.24~20.2.7)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대만 ATFF01_2
하나택 대만·지우펀·스펀 4일
688,000원-
토, 수, 금 토 3월4일 *일정명상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장가계 CJFF01_2
장가계 직항 4일 5일
799,000원-
화요일 3월4일, 금요일 4월5일 (19.11.26~20.2.28)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남태평양/중국/대만

겨울 특별기

괌 ALFF1A
하나택 5일 6일
1,050,000원-
수 3월4일 금 4월6일 (20.2.4~20.2.25)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대만 AVPF13_P
다방·호이안 4일
399,000원-
매일출발 3월4일 *제외 날짜 있음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세부 APFF01_A
세부 5일 일금리조트
445,000원-
주 2~4일 출항 *일정명상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보라카이 APFF10_1
보라카이 4일, 5일 일금리조트
544,000원-
수 3월4일 일 4월5일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하이난 CIPFF3_N
하이난 5일, 6일 특급호텔
420,000원-
수 3월4일 일 4월5일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50- 선택경비 있음

상해 CCFP01_P
하나택 상해·주자각 4일 5일
270,000원-
토, 수, 금 토 3월4일, 4월5일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상해/황산 CCFP01_1
하나택 상해·황산 4일 5일
549,000원-
수 3월4일, 토 4월5일
현저지점>가이드가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 항공사 및 현지 사정에 따라 운항정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가액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지,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tour.com 참조) ■ [도착비지] 도착비지는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tour.com 참조) ■ [메니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여행목적지 여행경보단계]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경찰지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총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교호텔 이상 2인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황에 따라 차가 있음) 수 있습니다. ■ 고객칭찬/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연일 보충보철 22억 1천만 원 기입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